

옥천 서산성의 향후 과제에 대하여*

양시은**

-
- I. 머리말
 - II. 관산성 추정 유적의 현황
 - III. 옥천 서산성의 향후 과제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554년 백제와 신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하였던 관산성 전투가 벌어진 옥천의 서산성을 중심으로 향후 과제를 살펴본 것이다. 서산성은 인근의 삼양리토성, 삼성산성과 함께 옥천분지로 들어오는 교통로를 통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옥천 서산성에 대한 이번 정밀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및 연구,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기본 마스터플랜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함을 주장하였다. 물론 서산성과 바로 인접한 삼양리토성과 삼성산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서산성의 역사적 의미

* 본 논문은 옥천군에서 2023년 8월 29일에 개최된“『관산성 전투와 옥천 서산성의 조사연구 및 향후과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와 학술적 가치를 파악함으로써 국가사적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물론 도지정문화재로의 지정은 선결 과제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문화재청의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해당 사업은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 그 주변부의 특화경관까지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산성은 유적 안내판이나 탐방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발굴조사 후에 기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관산성 전투를 대상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문화유산 활용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야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모든 사업은 지역사회를 위한 것인 만큼 가장 기본이 되는 지역민과의 접촉면을 늘릴 것을 주장하였다.

주제어 : 관산성, 서산성, 옥천, 백제, 신라, 증원역사문화권

I. 머리말

554년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벌어졌던 管山城¹⁾ 전투는 백제와 신라의 운명을 가를 만큼 결정적인 역사적 사건이었다. 553년 신라는 백제가 고구려에게 탈환하였던 한강 하류역을 공격하여 빼앗은 후 新州 설치하였다. 이에 백제의 聖王은 후에 위덕왕이 되는 왕자 昌을 필두로 백제와 가야, 왜의 연합군을 보내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신라에서는 軍主 角干 于德과 伊滄 耽知 등이 맞서 싸웠으나 백제군에 패하였고, 이에 신주의 군주였던 金武力이 새로 전장에 투입되었다. 그

1) 성경용(2023, 21쪽)에 따르면, 관산성은 진흥왕 15년 신라측의 기록이 유일하며 관성군은 신라의 경덕왕이 고시산군을 개명한 것이므로, 당시에는 골산성(古尸山城, 古利山城) 혹은 고시산성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있다.

런데 백제에 유리하게 진행되던 전투의 양상은 성왕이 아들인 창을 위로하기 위해 소수의 병력만을 이끌고 관산성으로 향하다가 백제군과 합류하기 전에 매복해 있던 신라군에 발각되어 목숨을 잃자 반전되었다. 이로 인해 신라의 여러 군대들은 승세를 타고 크게 이겨 백제의 佐平 4명과 병사 29,600명의 목을 베었다고 한다.²⁾

문헌에 기록된 관산성은 현재 충청북도 옥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산성(문안식, 2006, 358쪽) 혹은 환산 보루와 삼성산성을 아우르는 보루들의 총칭(김병남, 2010, 12쪽)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治所城이 들어서기에 적당한 옥천읍내의 삼양리토성을 중심으로 삼성산성과 서산성 일대에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차용걸 외, 2003, 189쪽 ; 정재윤, 2023, 62쪽).

특히 옥천에서는 동으로는 영동 방면 혹은 황간을 거쳐 추풍령을 넘어갈 수 있으며, 신라의 전략적 요충지인 삼년산성을 지나 상주에 이를 수도 있다. 또한 북으로는 문의-청주-진천을 거쳐 안성과 이천·여주로 통한다. 이로 인해 백제는 554년에 한강 하류가 아닌 관산성을 공격함으로써 상주-보은-이천 간 연결선을 차단하는 동시에 추풍령을 넘어 김천으로 나가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를 위협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정재윤, 2023, 62쪽).

옥천 서산성은 그간에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관산성 전투와 연계하여 그 역사적 의미와 학술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서산성에 대한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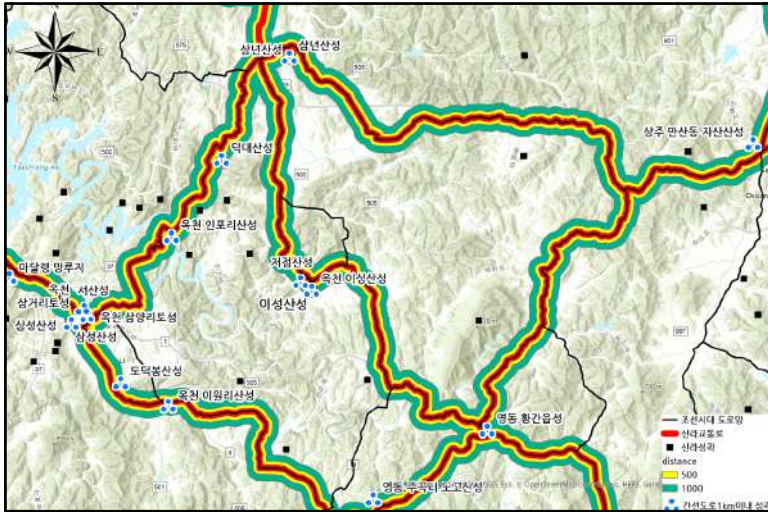
2) 『三國史記』卷第四 新羅本紀 第四 眞興王 15年(554)條.

II. 관산성 추정 유적의 현황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는 2002년 옥천군으로부터 학술용역으로 관산성 전투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옥천지역의 산성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차용걸 외, 2003). 그 결과를 살펴보면, 옥천지역에는 옥천읍을 중심으로 군북면과 군서면을 나누는 경계선을 이룬 산상에 산성과 보루들이 배치되어 있다. 특히 옥천읍과 군서면의 좁은 협곡에 위치한 삼양리토성, 서산성, 삼성산성 등의 성터를 중심으로 남서쪽의 마성산 줄기에 분포한 성터들과 서북쪽의 식장산-고리산(환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에 있는 성터들이 열을 지어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옥천의 일대 고대 교통로로는 금강을 동서 방향으로 건너다니던 화인진(化仁津)에서 서쪽으로 옥천을 지나서는 식장산의 북쪽으로 넘는 길과 식장산의 남쪽으로 넘는 고개, 서화천을 따라 서쪽으로 가는 길이 모두 사용되었다. 작은 고갯길을 통제할 수 있는 곳에 관방유적이 밀집 분포하고 있어 이 지역이 백제의 동쪽 경계이자 신라의 서쪽 경계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차용걸·조순흠, 2009, 100쪽).

신라는 5세기 이후 활발한 축성(築城) 사업을 전개하며 영역 확장 및 지방통치체제를 확립해 나갔는데, 이는 소지마립간기의 관도(官道) 정비와 같이 왕경에서 지방의 주요 거점과 변방을 연계하는 교통로 확보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라의 옥천 지역 진출 추정 경로는 상주-화령-보은(삼년산성, 470년)-옥천 청산면(굴산성, 486년 이전)-옥천 이원면(사시성, 474년)-옥천읍(관산성, 554년 이전)으로 이어지는 화령로와 김천-추풍령-영동 황간(좌라성 474년)-옥천 청산면(굴산성)-옥천 이원면(사시성)-옥천읍(관산성)으로 이어지는 추풍령로가 대표적이다(김봉근·박철수, 2022).



[삽도 2] 신라의 간선도로망과 신라 성곽 분포(©강동석)

이처럼 옥천지역은 백제와 신라의 접경지이면서 서로의 왕도에 도달할 수 있는 주요 교통로로서 그 의미가 크다. 이하에서는 관산성으로 비정되고 있는 옥천지역 관련 성곽들의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³⁾

1. 옥천 서산성

서산성은 옥천읍 문정리와 서정리 사이의 산 봉우리(해발 197m)를 중심으로 능선과 계곡부를 둘러싸고 조성되었다. 산성에서 남쪽으로 300m 떨어진 곳에는 삼양리토성이, 서남쪽으로 1km 가량 떨어진 곳에는 삼성산성이 위치한다. 산성 아래쪽으로는 서화천이 굽이쳐 북

3) 관산성 추정 유적의 현황에 대해서는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의 2003년도 지표조사 보고서(차용길 외, 2003)와 조순홍(2021)과 서문영(2023)의 발표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류하고, 금구천이 이에 합류한다. 현재 산성 아래에는 경부고속도로 터널구간이 있다.

산성의 평면형태는 북서쪽의 돌출된 ‘凸’자 형태로, 전체 성벽의 둘레는 약 1,025m이다. 현재 성벽은 대부분 무너진 상태로, 석재가 흩어져 있다. 지형에 따라 내외협축 및 내탁식으로 축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성에는 3곳의 문지를 비롯하여 치, 건물지, 망대지, 집수 시설 등이 확인된다. 집수시설은 서쪽의 계곡부를 막아 축조한 서쪽 성벽의 안쪽 평탄지에 마련되어 있다.

가시권역 분석 결과(김봉근, 2023)에 따르면, 서산성은 산성의 남동쪽으로 펼쳐진 옥천분지를 조망하기에 적합하다.



① 평면도(©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② 항공사진(©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③ 가시권역(©김봉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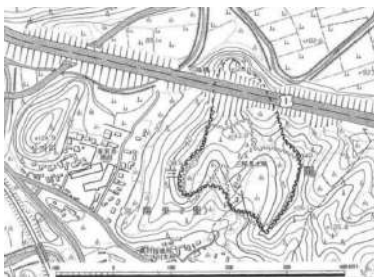


④ 성벽

[삽도 3] 서산성

2. 옥천 삼양리토성

삼양리토성은 옥천읍 삼양리의 서쪽 구릉(해발 142m)에 위치한다. 구릉부와 남쪽의 작은 계곡을 끼고 성벽을 조성하였는데, 전체 둘레는 800m 가량이다. 동쪽과 서쪽의 성벽은 완연하게 내외협축의 양상을 보이거나, 북쪽은 경부고속도로 관통(현 옥천 톨게이트 부근)으로 인해 성벽이 파괴되었으며, 계곡부가 있는 남쪽 역시 상당부분 훼손되었다. 지형상 남쪽 계곡부에 문지와 수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유적에서는 삼국시대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① 지형도(차용걸 외 2003)



② 항공사진(©성정용)

[삽도 4] 삼양리토성

3. 옥천 삼성산성

삼성산성은 옥천읍 양수리와 군서면 월전리의 경계를 이루는 삼성산(재건산; 해발 303m)의 정상부를 둘러싸고 석축 성벽을 쌓은 산정식산성이다. 성벽은 지형에 따라 협축식과 내탁식이 모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대부분 허물어졌다. 성벽의 전체 둘레는 약 500m이다. 성의 남단부에 망대로 추정되는 석축 시설이 발견되었고, 중앙에는 장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평탄지가 있다. 성의 북쪽에도 비교적 넓은 편평한 평탄지가 그리고 그 남쪽에는 우물터가 남

아있다.



① 지형도(차용걸 외 2003)



② 서성벽(©성정용)



③ 가시권역(©김봉근)



④ 위성사진(©Google Earth)

[삽도 5] 삼성산성

삼성산성과 관련하여서는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에 “성황당산 석성(城隍堂山石城)은 군(郡)의 서쪽 4리에 있어, 둘레 396보이고, 험하다. 성 안에 우물 하나가 있는데 가뭄을 만나면 곧 마른다. 군창(軍倉)이 있다”는 기록이 전한다.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비롯한 다른 지리지에는 산성에 대한 언급은 없고 삼성산은 군의 서쪽 5리에 있는데, 고성(古城)의 유지가 있다고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대동지지(大東地志)』 옥천 성지조에는 ‘삼성산고성은 서산성으로도 불리며, 둘레 2,141척이고 우물이 하

나 있다'라고 전하고 있어, 서산성과 삼성산성이 혼동되는 양상을 보인다.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가시권역 분석 결과(김봉근, 2023)에 따르면, 삼성산성은 옥천읍 바깥 서북쪽을 주 경계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확인된다. 옥천분지 내부를 조망하기 용이한 서산성의 가시권역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 옥천 환산보루군

환산보루군(환산성)은 군북면 소재 환산(해발 581m)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이어지는 산 능선을 따라 곳곳의 산 봉우리에 축조된 6개의 석축 보루군을 지칭한다.



① 환산성 제1보루(©조순흠)

② 환산성 제4보루(©조순흠)

[삽도 6] 환산보루군

제1보루는 환산 줄기의 가장 남쪽 봉우리에 조성되어 있다. 성벽 둘레 217m인 평면형태 타원형의 산정식 석축산성으로, 이백리산성 내지는 할배성으로도 불린다. 부분적으로 자연암반을 그대로 성벽으로 이용하고 있다. 성의 남단과 북단에는 치가, 북쪽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는 망대가 남아 있다.

제2보루는 제1보루로부터 북서쪽으로 70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산정식 석축산성으로 성벽 둘레는 113m 가량이다. 전체적인 평면

형태는 삼각형 형태이다.

제3보루는 제2보루로부터 800m 가량 떨어진 봉우리에 조성되어 있다. 조선시대에 환상보수가 설치된 관계로 고대 산성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고 장방형의 봉수대터가 비교적 잘 남아있다.

제4보루는 제3보루로부터 북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에 있다. 둘레 107m 가량의 평면형태 역삼각형의 산정식 석축산성이다.

제5보루는 제4보루로부터 북쪽으로 9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보루군 중 가장 높은 봉우리에 조성되어 있는데, 성벽 둘레 217m인 타원형의 산정식 석축산성이다.

제6보루는 제5보루에서 동쪽으로 20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성벽 둘레 82m 가량이며, 평면형태 타원형인 산정식 석축산성이다.

Ⅲ. 옥천 서산성의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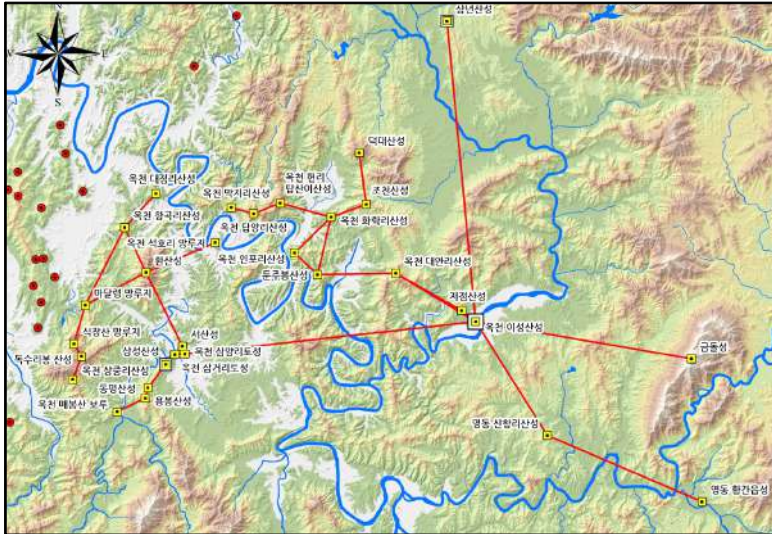
『삼국사기』 지리지에 따르면, 옥천군은 본래 신라의 고시산군(古尸山郡)이었는데, 경덕왕(景德王)이 관성군(管城郡)으로 고쳤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라와 백제의 국경이자 각기 왕도(王都)로 통하는 주요한 교통로였기 때문에, 백제와 신라의 운명을 결정짓게 한 554년의 관산성 전투 역시 이곳에서 벌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관산성의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옥천의 서산성을 중심으로 한 삼양리토성, 삼성산성 일대로 비정되고 있다. 환산 보루군(환산성) 역시 관산성 후보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지세가 매우 험해 접근이 쉽지 않고 소규모의 보루가 능선을 따라 배치된 특징을 고려한다면 동의하기 어렵다.

사실 관산성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굴조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옥천군에는 저점산성이나 이성산성처럼 성벽 둘레가 1km 이상인 것부터 국사봉망루처럼 둘레 30m

가량인 소형까지 총 45개소의 성곽이 분포하고 있다. 그림에도 지금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신라 굴산현(屈山縣)의 치소인 굴산성으로 비정되고 있는 이성산성 뿐이다.

옥천지역 신라 성곽의 연계망을 기준으로 사회네트워크분석(SNA)을 실시한 강동석(2023, 119~120쪽)에 따르면, 삼양리토성은 이성산성과 함께 주변 성곽과의 연결 관계를 보여주는 연결중심성이나 네트워크 조직 내에서의 권력, 영향력,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근접중심성 등이 다른 성곽들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서산성이나 삼성산성 역시 주변의 다른 성곽에 비해서는 네트워크 중심성이 높은 편이다. 삼양리토성을 비롯한 관산성으로 비정되는 이들 성은 마성산, 식장산 정상부를 따라 축조된 성곽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된다.



[삽도 7] 옥천지역 일원 신라 관방네트워크(©강동석)

옥천 서산성은 관산성 전투가 벌어졌던 이곳 옥천에서 관산성 비정지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곳 중 하나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산성은 옥천분지의 관문의 역할을 하였던 곳으로, 고대 옥천지역의 핵심 방어 산성으로 평가되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루어진 정밀지표조사 이전까지는 광역지표조사 등을 통해 간략하게만 다루어졌을 뿐 유적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정보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삽도 8] 서산성과 주변 성곽(©성정용)

옥천 서산성의 역사적 의미나 학술적 가치, 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산성의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특정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전략 및 실행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책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노력, 관심, 시간 등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염두해 두고 옥천 서산성과 관련한 향후 과제를 언급해보고자 한다.

1. 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본 마스터플랜의 수립

옥천 서산성에 대한 이번 정밀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유적의 조사 및 연구,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기본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해당 마스터플랜은 향후 옥천군의 여러 활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지자체장과 추진 부서의 의지 그리고 관계 부서의 지원 및 지역 주민의 의사 반영이 매우 중요하다.

후술할 국가사적으로의 추진이나 역사문화권 역사환경 정비사업의 추진 또한 기본 마스터플랜에 담겨야 할 주요 안건이다. 그리고 서산성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관산성 전투와 관련하여 같이 언급되는 삼양리토성과 삼성산성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정책 목표가 일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으므로, 꼼꼼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추진 전략과 실행 계획을 잘 짜야 할 것이고 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2. 체계적 학술조사를 통한 국가사적으로의 지정 노력

옥천 서산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보존 및 정비,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서산성은 현재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있지 않은 비지정문화재로, 옥천군의 향토유적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⁴⁾ 이는 옥천 서산성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

4) 옥천군에 소재한 문화유산 중 등록문화재는 모두 43건으로, 보물 2건, 천연기념물 1건, 국가등록문화재 2건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14건, 충청북도 기념물 12건, 충청북도 민속문화재 1건,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11건이 있다. 이들 문화유산 중 성곽유적은 이성산성 1개소만 충청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참고로 옥천군의 향토유적은 현재 4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성곽은 해당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의 증거이다.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옥천 일대를 관산성 전투가 발생하였던 곳으로 지적하는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성을 비롯한 옥천지역 관산성 비정지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무척 아쉬운 부분이다. 사실 옥천군에서는 지난 2002년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에 의뢰하여 관산성을 찾기 위한 지표조사 및 관련 학술 용역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① 관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② 학술대회 포스터

[삽도 9] 관산성 관련 자료

그렇지만 올해 8월 29일에 개최된 「관산성 전투와 옥천 서산성의 조사연구 및 향후과제」 학술대회를 포함한 「옥천 서산성 정밀지표조사」 용역(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수행)은 문화재청의 「2023년도 사적예비문화재 조사지원사업」에서 옥천군이 선정되면서 진행된 것이다. 보통 비지정문화재는 지자체의 의지가 없으면 학술조사는 물론이고 보존이나 정비 등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관련 학술조사가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⁵⁾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제6조)하고, 시·도 지사는 연도별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제7조)하여야 한다. 또한 제34조에는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51조 제①항에도 국가는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역사적으로 혹은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적은 국가사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①항에는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에 따르면 사적의 지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5)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2024년 5월 17일에는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가. 역사적 가치

- 1)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난 것
- 2) 국가에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
- 3)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
- 4) 특정 기간 동안의 기술 발전이나 높은 수준의 창의성 등 역사적 발전상을 보여줄 것

나. 학술적 가치

- 1)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 2)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을 알려주는 유구(遺構: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파괴되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는 잔존물)의 보존상태가 양호할 것

만약, 옥천 서산성 혹은 삼양리토성, 삼성산성 등이 관산성 내지는 관산성 전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밝혀진다면, 특히 백제와 신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투였다는 점에서 이들 유적은 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입증하게 되는 셈이고 이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족하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옥천 서산성과 주변 성곽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에 실시한 서산성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 결과는 향후 발굴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 발굴 조사를 통해 산성의 초축 시점이나 활용 주체, 축조 기술, 성곽의 변천 양상 등을 밝혀냄으로써 관산성 혹은 관산성 전투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국가사적으로서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서산성 주변의 삼양리토성과 삼성산성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들 세 유적은 관산성 전투와 관련한 유력한 후보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옥천 삼양리토성과 삼성산성은 문화재청의 「사적예비문화재 조사지원사업」 등을 적극 이용하여 학술조사를 진행해도 좋겠다.

3. 문화재청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사업」 참여

올해 4월 문화재청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역사문화자원 자치제고 및 지역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선도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그 결과 전라남도 나주시, 해남군, 강원도 강릉시, 경상남도 함안군 등 4개의 지자체가 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이들 지자체에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48억원이 지원된다고 한다.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은 개별 문화재보다는 문화유산을 둘러싼 역사성·장소성·경관 등을 고려한 입체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 과정에서는 비지정 유적 정비, 유적 주변부 특화경관 조성, 역사문화 향유공간 조성, 역사문화권 콘텐츠 발굴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역사문화권의 홍보 및 브랜딩 사업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을 있게 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에 제정되었다. 원래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역사문화권만이 법률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학계, 지자체, 정치권 및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2022년 중원역사문화권이 추가될 수 있었다.

이 법률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까지의 문화재 정책과는 달리 비지

정문화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문화재청의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사업」의 공모 지원안내 사항에도 잘 드러나 있다. 사실 지정문화재는 이미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어 대부분 정비가 완료된 경우가 많으므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기초한 정비구역 설정은 비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제와 신라가 국가적 명운을 걸고 치열하게 부딪쳤던 관산성 전투라는 역사적 현장을 보유하고 있는 옥천지역은 해당 사업의 취지와도 매우 잘 부합하는 곳으로 판단된다. 우선 백제 성왕의 전사와 관련한 서사뿐만 아니라 왕자 창에서 위덕왕으로의 성장, 백제와 신라의 각축, 그리고 백제, 가야, 왜 연합군과 신라의 전투 등을 이용한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곳기에 관광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기가 용이하다. 또한 관산성 전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옥천 서산성과 주변의 성곽 유적들(삼양리토성, 삼성산성 등)이 바로 인접해 있어 정비구역 설정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비지정문화재라는 점에서 향후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역사적 의미와 학술적 가치가 밝혀질 가능성도 크다. 그리고 이들 유적은 옥천 읍내로 들어오는 초입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적 주변부 특화경관 조성을 통한 지역 환경개선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역사문화 향유공간 조성이나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또한 용이하다는 장점 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해당 공모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옥천군만의 특화된 전략 수립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 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올해 사업에 탈락한 지자체들 역시 기존 계획안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특화된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역사문화자원을 갖고 있는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사업 선정 가능성을 그리 만만하게 볼 일은 아니다.

서산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의 수립 과정에서도 유적의 정비 방안이 다루어지겠지만, 여기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유적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정비는 시급히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5.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의 실행

옥천 서산성 혹은 관산성을 이용한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은 매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관련 사업으로는 「생생문화재 사업」,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문화재 야행사업」,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등이 있다. 이 중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국민 행복은 크게’라는 목표로, 잠자고 있는 지역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콘텐츠화하여 문화재가 역사교육의 장이자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형 사업이다.

옥천군에서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과 함께 올해에는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한 옥주’라는 제목으로 생생문화재사업을 진행 중이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 활동을 했던 ‘중봉 조현’을 테마로 네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관산성 전투나 서산성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여 생생문화재사업을 기획하고 적극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은 서산성에 대한 기본 활용은 물론이고 옥천의 성곽 유적 및 관산성 전투에 대한 지역시민의 관심을 높이는데 유용하다.

한편, 문화재청에서는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에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실감콘텐츠를 접목하여 관람객들에게 실감나는 문화유산을 체험하게 하는 사업의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시민들에게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관산성 전투와 옥천의 관방유적을 기본으로 한 문화유산을 입체적으

로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새로 건립되는 옥천박물관의 주요 콘텐츠로 활용도 가능하며, 옥천군 문화관광 안내에도 적극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6. 지역사회와의 연계 노력

(사)옥천향토사연구회 및 산악회를 비롯하여 옥천 서산성 일대 주민들과의 연계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가 서산성을 대상으로 여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필요하지만,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 그리고 각종 정비 및 활용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지역 내 문화유산의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와 괴리된다면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의 설정이나 국가사적으로 지정 등 관련 사업의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서산성을 비롯한 관산성 전투와 관련한 여러 유산이 문화자원으로서 지역의 환경 개선 및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밖에도 답사를 포함한 관산성 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공무원, 학생,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옥천향토사연구회나 산악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답사 프로그램이나 전문가와의 심화 프로그램 등의 개최도 고려해볼만 하다. 관산성 관련하여 향후 학술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지역민을 위한 별도의 현장 설명회 등도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서산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백제와 신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관산성 전투가 벌어진 옥천의 서산성을 중심으로 향후 과제를 살펴해보았다. 서산성은 인근의 삼양리토성, 삼성산성과 함께 옥천분지로 들어올 수 있는 통행로를 통제할 수 있는 곳인 만큼 지정학적 요충지라 할 수 있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성곽의 축조 시점과 이용 주체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시행된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현황 파악은 이루어졌다. 옥천 서산성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산성 전투와 연계하여 역사적 의미와 학술적 가치를 부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옥천 서산성에 대한 이번 정밀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및 연구,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기본 마스터플랜 수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산성과 바로 인접한 곳에 있는 삼양리토성과 삼성산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발굴조사를 토대로 서산성의 역사적 의미와 학술적 가치를 파악함으로써 국가사적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시행 중인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사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함을 주장하였다. 해당 사업은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 그 주변부의 특화경관까지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비구역 일대의 환경 개선 및 관산성 전투와 연계된 여러 역사문화 유적을 관광자원으로 이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옥천군은 많은 성곽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적 안내판이나 유적 탐방로 등과 같은 기본 정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다. 이는 서산성 또한 마찬가지여서 안내판 설치 및 등산로(탐방로) 정비 등과 같은 기본 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서산성 자체 혹은 관산성 전투를 이용한 스토리텔링

을 통하여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적극 참여해야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특히 문화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생문화재 사업이나 실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사업은 지역사회를 위한 것이므로, 가장 기본이 되는 지역민과의 접촉면을 늘릴 것을 주장하였다. 시민을 위한 답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옥천군에 들어설 박물관 사업으로 추진해도 좋겠다. 그리고 서산성을 비롯한 옥천의 여러 관방유적이거나 관산성 전투와 같은 옥천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투고일: 2023.10.26, 심사개시일: 2023.11.30, 게재확정일: 2023.12.12.]

【참고문헌】

- 강동석, 2023, 「GIS를 활용한 옥천 이성산성의 기능과 역할 재구성」,
『옥천 이성산성과 삼국사기의 굴산성』,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김병남, 2010, 「백제 성왕대 관산성 전투의 의미」, 『전북사학』 36
- 김봉근, 2023, 「옥천지역 산성의 현황과 과제」, 『관산성 전투와 옥천
서산성의 조사연구 및 향후과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김봉근·박철수, 2022, 「충북 옥천지역 고대 성곽유적의 현황과 과제」,
『제3회 관산성 학술대회』, 옥천향토사연구회
- 문안식, 2006,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 서문영, 2023, 「옥천 서산성의 조사성과」, 『관산성 전투와 옥천 서산
성의 조사연구 및 향후과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서영일, 1999,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 성정용, 2022, 「역사문화권 정비법과 옥천군의 대응방향」, 『제3회 관
산성 학술대회』, 옥천향토사연구회
- 성정용, 2023, 「산성의 나라 옥천의 역할과 위상, 역사문화권 추진방
안」, 『관산성 전투와 옥천 서산성의 조사연구 및 향후과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성정용·양시은, 2021, 「중원역사문화권 설정의 의미와 활용 방안」,
『문화재』 54-3.
- 양시은, 2023, 「옥천 서산성의 향후과제」, 『관산성 전투와 옥천 서산
성의 조사연구 및 향후과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양기석, 2009, 「관산성 전투의 양상과 영향」, 『중원문화연구』 12
- 정재운, 2023, 「관산성 전투와 그 의의」, 『백제연구』 77
- 조순흠, 2021, 「옥천지역 산성의 현황과 나제 국경선의 변천」,
『2021 옥천 산성 학술대회』, 옥천향토사연구회
- 차용걸·양기석·조순흠·김주미, 2003, 『신라·백제격전지(관산성) 지표조
사 보고서』, 옥천군·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차용걸·조순흠, 2009, 「관산성 관련유적의 현상과 보존방향」, 『중원문

옥천 서산성의 향후 과제에 대하여

화연구』12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20, 『옥천 테크노밸리 조성부지 내 유적』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23, 『옥천 서산성 정밀지표조사 용역 보고서』(출간예정)

국립문화재연구원·한국고고학회, 2022, 『역사문화권 기초조사 연구 - 역사문화권 가치와 개념 및 시·공간 범위 연구-』

【Abstract】

The Future Tasks of Seo Mountain Fortress in Okcheon

Yang, Sieu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future tasks of Seo Mountain Fortress in Okcheon, the area of Battle of Gwansan Fortress(管山城) in 554, which was historically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fate of Baekje and Silla. Seo Mountain Fortress, along with the nearby Samyang-ri Earthen Wall and Samsung Mountain Fortress, is strategically located to control the traffic routes leading into the Okcheon Basi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cent detailed survey of Seo Mountain Fortress in Okcheon, this paper argues that a fundamental master plan for future excavation, research,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site should be established as a priority. It is crucial to consider Samyang-ri Earthen Wall and Samsung Mountain Fortress, which are adjacent to Seo Mountain Fortress.

The paper also mentions the need for systematic excavation to identify the historical significance and academic value of Seo Mountain Fortress in order to qualify for designation as a National Historic Sites. Of course, designation as the Province-designated Cultural Heritage.

The paper also argues that the local government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s project to improve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of historical and cultural areas. This project is the most realistic option because it can create a distinctive landscape that includes non-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in the surrounding area.

Since Seo Mountain Fortress does not have any official signboards or trails, it is imperative to conduct basic maintenance after excavation. The paper also mentions the ne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cultural heritage utilization projects through storytelling based on the Battle of Gwansan Fortress.

Lastly, the paper argues that all of the above projects are for the local community, so it is necessary to increase contact with local residents.

Keywords: Gwansan Fortress(管山城), Seo Mountain Fortress, Okcheon, Baekje, Silla, Jungw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Area